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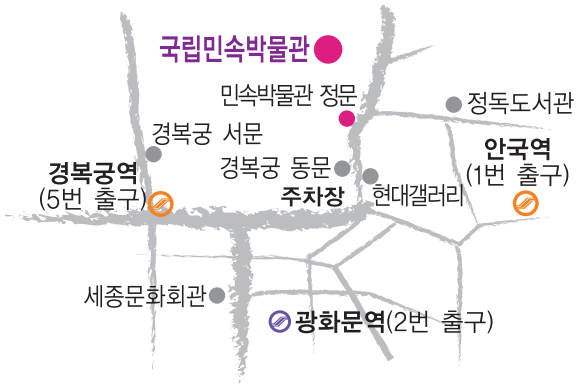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유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0 **홈페이지** http://www.nfm.go.kr



이 용 안 내

개관 및 관람 시간
3 ~ 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6 ~ 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5~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 관 일 매주 화요일 **입 장 료** 무료

※공연모집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6 June 2013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매주 토요일 오후3시 Every Saturday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매주 일요일 오후2시 Every Sunday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06 6월 토요상설공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Saturday Performances for June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제800회
청풍점수(淸風點水)
Cheongpungjeomsu
06. 01

제801회
한국의 민속 예술, 그리고 혼이 깃든 춤 이야기
Korean Folk Art, and Story of Dance with Soul
06. 08

제802회
단오맞이 굿
Danomaji Gut
06. 15

제803회
송규정의 정가 '신록의 정가향연'
Song Gyujeong's Jeong-ga 'a Feast of Jeong-ga in fresh verdure'
06. 22

제804회
박건희의 춤 '꽃나무그늘 아래서'
Park Geonhee's Dance 'Under the Shade of a Flower Tree'
06. 29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은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6월 일요열린민속무대 06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Sunday Performances for June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제338회
관객이 참여하는 전통연희 한마당
Traditional Performance Festival with the Audience
06. 02

제339회
정조대왕, 24반무예를 만들다
King Jeong-jo created 24 kinds of Martial Arts
06. 09

제340회
김제농악 한마당
Gimje Nong-ak(farmer's music) Festival
06. 16

제341회
Oh? Oh! 유레카 국악
Oh? Oh! Eureka Gugak(Korean traditional music)
06. 23

제342회
태극 취타대의 평화의 빛을 비추리라 '화광연희'
'Hwagwangyeonhee', Shine a peaceful light by Taegeuk Chitadae
06. 30

6월 정자나무그늘 수요민속음악회

Wednesday Folk Music Concerts for June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Every Wednesday 11:00am, Museum Courtyard

06. 05 호연, 소리로 떠나는 여행 Traveling with Music
06. 12 류하, 흐르는 물에 소리되어 Ryuha, as Rushing Water Become Music
06. 19 락음, 민족문화유산 '아리랑' National Cultural Heritage 'Arirang'
06. 26 광개토사물놀이, Movement Korea 광개토 Movement Korea Gwang-gaeto

청풍점수(淸風點水)

Cheongpungjeomsu

2013. 6. 1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1 June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자연에서 진리를 찾듯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토대로 세계로 비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박노상의 청풍점수(淸風點水) 공연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1부 정악편으로 대금 정악의 대표곡으로 은은한 가락과 청아한 대금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대금 독주곡 '상령산'을 선보인다. 이어서 생황과 단소 병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향피리 중심의 관악 합주로도 연주되는 곡으로 단소, 생황, 양금으로 연주하는 수룡음, 화려하고 우아한 궁중복식을 입고 나라의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춤으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역동적이며 예술가치가 뛰어난 태평무를 관람한다. 2부 속악편에서는 남도소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원장현류 대금산조와 서편제 판소리 그리고 시나위와 살풀이춤이 대미를 장식한다. 전통이 있는 악(樂), 풍류가 느껴지는 악(樂), 흥이 있는 악(樂)의 세계로 관람객을 감동시킬 것이다.

The performance entitled 'Cheongpungjeomsu' will be presented aiming to fly to the world through the most Korean style music.
The first stage is Jeong-ak(court music): Daegeum(large flute) solo 'Sangryeongsan', which is a representative Daegeum music and presents faint rhythm and refined taste of Daegeum; 'Suryongeum' which is played by Danso, Saenghwang and Yang-geum; and 'Taepyeongmu' which is a dynamic, artistic and the most Korean dance to wish grand peace in the country by wearing royal costumes.
The second stage is Sog-ak(folk music): 'Daegeum Sanjo' in Won Janghyeon kind, which is the essence of Namdosori(music in the Southern Korea); 'Seopyeonje' pansori; 'Sinawi' shamanical music in south parts of Korea; and 'Salpuri' dance.
Audience will be moved by music with Ak(music), refined taste with Ak(music) and merriment with Ak(music).

공연순서 PROGRAM

▶1부 : 정악지점수 [正樂之點水] 1st stage: Jeong-ak(court music)

1. 상령산 Sangryeongsan
2. 수룡음 Suryongeum
3. 태평무 Taepyeongmu

▶2부 : 속악지점수 [俗樂之點水] 2nd stage: Sog-ak(folk music)

4. 원장현류 대금산조 Daegeum(large flute) Sanjo in Won Janghyeon kind
5. 판소리 Pansori
6. 시나위와 살풀이 Sinawi(shamanic music in the Southern Korea) and Salpuri

대 표 박노상(청주시립국악단 수석단원)
기 획 나혜경
출 연 박노상(대금), 전광수(아쟁), 이현아(피리, 생황), 조유임(거문고, 양금), 나혜경(장구), 김우경(징), 유연희(춤), 조애란(소리)

한국의 민속 예술, 그리고 혼이 깃든 춤 이야기

Korean Folk Art, and Story of Dance with Soul

2013. 6. 8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8 June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긴 역사 속에서 미풍양속과 어우러져 형성되어 온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춤사위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 위에 멋과 흥이 돋보이는 소리가 함께하는 가야금 병창을 선보인다. 이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한국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정신과 기교가 절정에 이르는 승무, 여인의 삶을 춤으로 형상화 하여 한국 춤의 우아함과 정중동의 미로 풀어낸 풍속도, 이름 없이 살다간 스님의 일생을 그려 본 작품 비천(꿈), 마지막으로 한국 민속춤의 율동(律動)과 극성(劇性) 그리고 현대적 감각이 박진감 있게 조화를 이루어 재창작한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호응을 받은 민준기의 무용극 〈초야 '시집가는 날' 중에서〉 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is dance performance will show combination of modern touch and traditional dance which has been formed in accordance with beautiful and fine custom in history.
Firstly, 'Gayageum-byeongchang(Gayageum ensemble)' will be presented by wonder and merriment in Gayageum melody. The next is 'Seungmu', the Important Cultural Heritage Assent No. 27, which shows the climax of technical and spiritual Korean Folk Dance. 'Pungsokdo' depicts ladies' life based on the beauty of Jung-Jung-Dong(stillness in movement). 'Bicheon(dream)' is dance of life of the monk who is anonymous. Lastly, the dance drama entitled Choya 'Wedding Day' by Min Jun-gi will be presented, which has well-received by audienc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fter recreation with a dynamic modern sense.

공연순서 PROGRAM

1. 가야금병창 Gayageum-byeongchang(Gayageum ensemble)
2. 승무 Seungmu
3. 풍속도 Pungsokdo
4. 비천(꿈) Bicheon(dream)
5. 초야 '시집가는 날' 중에서 Choya 'Wedding Day'

대 표 민준기(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민속문화교육 주임교수)
연 출 민현주(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사 회 민현주, 김태현
출 연 이진실, 황귀자, 이중규, 최명진, 김율희 외

단오맞이 굿

Danomaji Gut

2013. 6. 15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15 June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음력 5월 5일 세시절기인 단오를 맞아 치르는 굿으로 집안의 평안함에 감사하고 무사태평, 무병장수, 부귀공명을 비는 단오맞이 굿을 선보인다.
단오맞이 굿은 철따라 행해지는 신(신령)맞이굿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철맞이굿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것은 열두 달 베풀어지는 굿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월의 세배살이와 횡수막이, 2월의 개춘맞이, 3월의 꽃맞이, 4월의 철쭉맞이, 5월의 단오맞이, 6월의 햇밀천신과 유두맞이, 7월의 칠석맞이, 8월의 추석 한가위, 9월의 구일맞이, 10월의 햇곡맞이, 동지달의 동지맞이, 섣달의 설경맞이 등이 그것이다.
본 무대에서는 팔도명산의 신령을 모시고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한해의 평안과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상산맞이를 시작으로 인간의 수명과 복을 빌어 명을 주고 복도 주는 칠성굿, 마지막으로 민속박물관의 성주신과 터줏대감신을 모시고 흥겹게 영접하는 대감거리를 선보인다.

Today's performance is 'Danomaji Gut' which is a shamanic ritual on Dano the firth day of May in the lunar calendar to thank for peace in family and to wish for tranquility, health and longevity, and honor and wealth.
'Danomaji Gut' is one of the shamanic ritual to welcome gods, so called 'Cheolmajigut', seasonal greeting rituals. For instance, Sebaesari and Hoengsumagi in January; Gaechunmaji in February; Kkotmaji in March; Cheolzzukmaji in April; Danomaji in May, Haetmilcheonsin and Youdumaji in June; Chilseokmaji in July; Chuseok Hangawi in August; Gu-ilmaji in September; Haetgokmaji in October; Dongjimaji in November; and Seolgyeongmaji in December.
In this performance, 'Sangsanmaji' will open the stage in order to pray for peace and prosperity of audience by welcoming gods of all famous mountains in Korea. Nextly, 'Chilseonggut' is to wish for longevity and good luck. For the last, 'Daegamgeori' will be performed for gods to protec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alled Seongjusin and Teojutdaegam.

공연순서 PROGRAM

1. 상산맞이 Sangsan Greeting(an act of shamanic ritual)
2. 칠성굿 Chilseong-gut(an act of shamanic ritual)
3. 대감거리 Daegamgeori(an act of shamanic ritual)

대 표 이용녀(주무)
출 연 하영환(피리), 진미애(장구), 이재식(징), 신임옥(바라), 신요대(보조)

송규정의 정가

'신록의 정가향연'

Song Gyujeong's Jeong-ga
'a Feast of Jeong-ga in fresh verdure'

2013. 6. 22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2 June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송규정의 정가(正歌)를 선보일 것이다. 정가는 바른 음악이란 뜻으로 전통성악인 정가(가곡, 가사, 시조)로 구성된 공연이다. 정가는 옛 선비들이 심신수양으로 즐기던 풍류음악이다. 느림과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정서의 순화와 평안을 갖게 하고 단전호흡으로 건강에 유익한 음악이다. 각박하고 여유 없이 분주한 현대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힐링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곡은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종목으로 시조의 시를 노래로 부르는 음역이 넓고 선율이 아름답다. 가사는 12가사가 전승되는데 장시를 노래로 부른다, 반주는 피리, 대금, 해금, 장고로 편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 장고로도 무방하다. 시조는 정가 중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음역이 넓지 않지만 다이나믹한 특징이 있다.

'Jeong-ga' means 'righteous music' and refers to a set of three Korean old traditional songs as to 'Gagok', 'Gasa', and 'Sijo'. It is a type of music mostly enjoyed by Seonbi(Korean scholars) relief nervousness of the mind and the body. Beauty of slow tempo and modest tune purifies and stabilizes emotions, resulting in practices of stomach breathing that benefits the actual health condition.

'Gagok', registered as the world intangible heritage, is a wide-range-tuned song of which the lyric comes directly from 'Sijo'. Background music is played by Daegeum, flute, Geomungo, Gayaguem, Haeguem, Janggo. 'Gasa' is a long essay composed of Yulmun (rhythmical poetic phrases) and it has been handed down to us as a tradition in the form of twelve separate songs. 'Sijo' is one of the formats in which Korean traditional poems are formulated and is special in that the lyrics are cited in accordance with rhythms.

공연순서 PROGRAM

1. 시 창 : 십이난간-경포대 한시 Si Chang(poem on melody)
2. 평시조 : 청산은 어찌하여 Pyeongsijo(a three-stanza Korean poem)
3. 여창지름 : 묏버들 가히 꺾어 Yeochangjireum
4. 우조시조 : 나비야 청산가자 Ujosijo
5. 우조지름 : 석안이 이승 Ujojireum
6. 가 사 : 수양산가 Gasa(long essay)
7. 남창가곡 우조 : 언락(벽사창이) Namchang Gagok(classical song by men) Ujo
8. 여창가곡 우조 : 우락(바람은) Yeochang Gagok(classical song by women) Ujo
9. 남창가곡반우반계 : 편락(나무도 바히) Namchang Gagok(classical song by men) Banubangye
10. 여창가곡 계면조 : 편수대엽 (모시를) Yeochang Gagok(classical song by women) Gyemyeonjo
11. 남여창가곡 계면조 : 태평가 Namyeochang Gagok(classical song by men and women) Gyemyeonjo

대 표 송규정(중요무형문화재 제 41호 가사이수자, 소석가악원 원장)

출 연 가창 – 양희진, 박소현, 박기순, 최귀임, 나혜란, 김규명
반주 – 홍은주(가야금), 이수진(거문고), 윤혜성(대금), 어경준(대금), 곽근열(피리), 정길순(해금), 이석종(장구)
낭송 – 권정숙

특별출연 이오규(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교육조교, 용인대 국악과 교수)

박건희 춤

'꽃나무 그늘 아래서'

Park Geonhee's Dance
'Under the Shade of a Flower Tree'

2013. 6. 29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9 June 2013(Sat) 3:00pm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묵묵히 자신의 무용세계를 고집해온 박건희와 그 무용단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공연으로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춤으로 긴 장삼을 입고 얼기설기 장삼을 뿌리치며 하늘 위로 솟구치는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전통춤의 백미인 강선영류의 승무를 선보인다. 이어서 화려한 궁중 복식을 입고 중우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정중동의 미적 형식을 가진 완벽한 춤이라 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한국춤의 대명사로 알려진 부채춤과 난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여인의 인고의 정신으로 표현한 애산지무 그리고 소고를 들고 경쾌하게 추는 소고춤과 전라도 지방의 권번 또는 기방에서 추어지던 춤으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동초수건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산조형식의 '꽃나무 그늘 아래서'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This performance is prepared to seek the interface between dance performance and the public by Park Geonhee and his dance troupe who has insisted on their own dance philosophy by crossing tradition and creation.
The first is the Buddist dance, 'Seungmu' in Kang Seonyoung kind. The dancer wears a Buddist monk's robe that soars up into the air while dancing, which creates the highlight of traditional Korean dance. Nextly, 'Taepyeongmu', the Important Intangible Heritage Asset No. 92, is called a perfect dance as a dancer wears royal costume and shows the beauty of Jeong-Jung-Dong(stillness in movement) through stately and elegant dance. 'Buchaechum(fan danc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dances. 'Aesanjimu' depicts lady's long-suffering comparing to orchid's pure beauty. Followings are 'Sogochum' which is a delight dance holding a small drum and 'Dongchosugeonchum'(handkerchief dance),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15, which was performed in Gibang, Jeollado region.
For the last, the finale is 'Under the Shade of a Flower Tree' which is Sanjo style as if looking at a beautiful Sumukhwa(ink painting).

공연순서 PROGRAM

1. 승무 Seungmu(Buddhist monk's dance)
2. 부채춤 Buchaechum(fan dance)
3. 소고춤 Sogochum(small drum dance)
4. 태평무 Taepyeongmu(dance for peace)
5. 애산지무 Aesanjimu(a creative dance)
6. 동초수건춤 Dongchosugeonchum(handkerchief dance)
7. 꽃나무 그늘 아래서 Under the Shade of a Flower Tree

대 표 박건희(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출 연 박건희. 송종준, 신은영. 김희진. 선미경. 심경수

관객이 참여하는 전통연희 한마당

Traditional Performance Festival with the Audience

2013. 6. 2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2 June 2013(Sun) 2:00pm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넉넉하고 푸짐하며,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전통연희 한마당과 단심줄 놀이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천지오방신에 축제를 알리는 의미로 세상 모든 경계를 이어주고 소통을 의미하는 '문굿'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만사가 쉼 없이 펼쳐지는 이치와 같이 풍물패의 굿 가락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에서 걸어가며 연주하는 길굿, 연희자의 힘찬 진풀이로 지신을 밟아 무사태평을 기원하고, 액을 물리치며 개개인의 악기별 기량을 선보이고 뽐내는 마당굿을 선보인다. 마지막 순서는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해지자는 의미에서 단심줄 놀이로 오늘의 공연을 마무리 한다.

In this performance, decent and exuberant traditional performance festival and Dansimjulnori will be presented.
Opening is 'Mungut' of which meaning is to announce the festival's start to Cheonjiobangsin(god of heaven and earth, and five directions) who links to all boundaries in the world. 'Gilgut' plays the musical instruments while walking as if rhythm has no rest reflecting the fact that our lives are never ending.
'Madang-gut' exorcises evil spirit and wishes for peace through players' powerful jinpuri, as well as showing top talent of each instruments at the same time. The finale is 'Dansimjulnori' to present harmony and happiness to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Ⅰ. 볼꺼리 마당– 전통판굿 Ⅰ. Stage to See: Traditional Pangut
1. 문굿 Mungut
2. 길굿 Gilgut
3. 마당굿 Madang-gut
▶Ⅱ. 놀꺼리 마당– 대동놀이 Ⅱ. Stage to Play: Daedongnori
1. 단심줄 놀이 Dansimjulnori

대 표 서신석(예천엔터테인먼트 대표)

출 연 서신석, 송주광, 한재훈, 민재경, 구자호, 유선화, 강길화, 송미희, 최보근, 김정민, 현경훈, 노진우, 김범수, 김지혜, 이진화, 민경빈, 우수정, 김정용, 도현성, 김수인, 강병성, 최재국, 김가현, 김경은, 박현우, 유혜미, 이재영, 조건희, 변진규, 정일협, 장연정, 이창선, 임광표, 김재균, 문번수

정조대왕, 24반무예를 만들다

King Jeong-jo creates 24 kinds of Martial Arts

2013. 6. 9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9 June 2013(Sun) 2:00pm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무예와 춤, 음악이 함께하는 새로운 창작극 형태의 24반무예를 선보인다. 24반무예는 조선시대 제22대 군주인 정조대왕의 명에 의해 당시 최고의 실학자인 이덕무, 박제가와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던 백동수가 주도하여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종의 기예를 말한다.

24반무예는 크게 18가지의 보병무예와 6가지의 기병무예로 구분하여 크게 창법, 검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창법으로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기창(騎槍), 당파(鐺鈀), 기창(騎槍), 낭선(狼筅), 검법으로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교전,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脅刀), 등패(籐牌) 그리고 권법, 곤방, 편곤(鞭棍),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oday, 24 kinds of Martial Arts which is a creative drama composed of martial arts, dance and music will be performed.

24 kinds of Martial Arts is the 24 kinds of martial arts in 'Muyedobotongji' written by Lee Deokmu and Park Jega who are the most famous realistic scholars as well as Baek Dongsu who is the best military man according to the order of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period.

24 kinds of Martial Arts includes 18 martial arts for infantry soldiers and 6 martial arts for cavalry soldiers. It is divided into Changbeop(spearmanship), and Geombeop(swordsmanship). In details, Changbeop includes Jangchang, Jukjangchang, Gichang, Dangpa, and Nangseon; Geombeop includes Ssangsudo, Yedo, Waegeum, Gyojeon, Jedokgeom, Bongukgeom, Ssang-geum, Masangssang-geum, Woldo, Masangwoldo, Hyeopdo, and Deungpae; and Gwonbeop(the art of fistduel), Gonbang, Pyeongon, Masanpyeongon, Gyeokgu, Masangjea and s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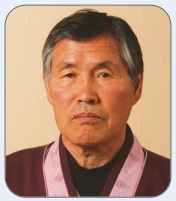
공연순서 PROGRAM

▶1부 : 정조대왕의 꿈과 현실 [Part 1] - Dream and Reality of King Jeong-jo

1. **기수련 및 예도 시연** Training and Yedo performance
2. **예도총보** Yedochongbo
3. **월도** Woldo(sword looking like a crescent)
4. **제독검** Jedokgeom
5. **활쏘기** Archery
6. **본국검** Bongukgeom

▶2부 : 무예와 예술의 만남 [Part 2] Martial Arts Meet Arts

7. **검무** Geommu(sword dance)
8. **장창** Jangchang(longa spear)
9. **권법** Gwonbeop(the art of fist duel)
10. **쌍수도** Ssangsudo(martial arts with two swords on both hands)
11. **교전** Gyojeon(battle)
12. **베기** Begi(cut by sword)



연 출 김광식(24반무예협회 중앙시범단)

출 연 임한필, 윤은상, 박태호, 임영환, 김갑식, 권정국, 김영준, 김진주, 김용숙, 김선겸, 권미애

김제농악 한마당

Gimje Nong-ak(farmer's music) Festival

2013. 6. 16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16 June 2013(Sun) 2:00pm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전라도의 대표적인 호남 우도 김제 풍물가락을 무대화한 이번 공연은 기존의 풍물 형식에서 발전된 호남 풍물만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무대에서 나쁜 일을 물리치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호남 고사소리, 호남 김제 집돌이굿을 시작으로 우도 설장구의 명인 이부산 선생의 계보를 잇는 장구 합주곡인 우도 설장구, 계절에 비유된 인간의 인생사를 노래하는 사철가, 좀처럼 보기 힘든 김제농악 판굿 전판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김제농악 판굿 전판에서는 부포 놀음, 설장구 놀음, 북 놀음, 사자탈 놀음, 열두발 놀음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관객과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대동놀이까지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Today's performance, which is staged from Honam Udo(right hand side of Honam Province) Gimje Pungmul Rhythm,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feel wonder and merriment of Honam Pungmul.
The performance starts with 'Honam Gimje Jipdorigut',called Honam gosasori which is to achieve aims and dispell misfortunes. Janggu ensemble 'Udo Seoljanggu' continues the tradition of Lee Busan, the master of Udo Seoljanggu. 'Sacheolga' depicts life story as a metaphor for seasons. 'Gimje Nong-ak Pangut(full version)' will be presented, which is hardly performed in public. Particularly, in this performance, there are variety things to see such as 'Bupo(top decoration of hat) noreum', 'Buk(drum) noreum', 'Sajatal(lion mask) nereum', 'Yeoldubal(12 foot) noreum' and so on. Furthermore, the audience will be invited to 'Daedongnori(accompanied play)' of which provides variety things to see, listen and experience.

공연순서 PROGRAM

1. 호남 김제 집돌이굿 Honam Gimje Jipdorigut
2. 이부산류 우도 설장구 Udo Seoljanggu in Lee Busan kind
3. 판소리 사철가 Pansori Sacheolga
4. 호남 우도 김제농악 판굿 전판 Honam Udo Gimje Nong-ak
5. 대동놀이 Daedongnori(accompanied play)

대 표 감종문
(전북무형문화재 제7-3호 호남우도 김제 풍물 이수자)

출 연 김민구, 김범민, 임수아, 오소정, 김은영, 박지웅, 이상현, 이윤선, 박준혁, 용혜정, 임수현, 박은혜, 손은경, 김동준, 권준성, 김보미

Oh? Oh! 유레카 국악

Oh? Oh! Eureka Gugak(Korean traditional music)

2013. 6. 23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23 June 2013(Sun) 2:00pm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의 멋과 새로운 장르의 화합을 꿈꾸는 소리 & 리듬 & 판 예술단 오산(五山)의 창작 작품들로써 국악 중에서도 신명나는 두드림을 통해 국악의 신명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첫 무대는 대북합주 '북의 향연'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리듬에 일본 고유의 북 가락을 접목시킨 작품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설장구 놀이에서는 기존의 설장구 가락을 토대로 하여 재탄생 된 신명나는 설장구 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세 번째 무대로는 꽹과리, 장구, 북, 징의 화려한 조화를 즐길 수 있는 삼도사물놀이가 연주되며 마지막 무대는 앉아서 연주하던 장단들을 일어나서 몸짓과 연주가 하나 되어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판굿으로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This performance is composed of creative traditional performances of exciting beating by a 'sound & rhythm & pan art troupe' called Ohsan(five mountains), hoping to unify traditional wonder and new genres.
First stage starts with a drum ensemble 'A Feast of Drum' integrating Korean rhythm with Japanese drum rhythm. Nextly, 'Seoljanggunori' presents a recreated seoljanggu performance based on traditional seoljanggu rhythm. For the following, 'Samdosamulnori' shows harmony of delightful sounds of a Kkaeng-gari(small gong), a janggu(hourglass shaped-drum), a buk(drum) and a jing(gong). Lastly, 'Pangut' will present double enjoyment to the audience as players show not only play but also standing movements.

공연순서 PROGRAM

1. 대북합주 '북의 향연' Drum Ensemble 'A Feast of Drum'
2. 설장구 놀이 Seoljanggunori
3. 삼도사물놀이 Samdosamulnori(play with four percussions)
4. 판굿 Pangut

대 표 최형욱(소리&리듬&판 예술단 五山)
출 연 최형욱, 박다미, 라지혜, 김은선, 김혜리, 안현준, 이혜빈, 구한솔, 김용환, 최지원

태극 취타대의 평화의 빛을 비추리라

'화광연희(和光演戱)'

'Hwagwangyeonhee', Shine a peaceful light
by Taegeuk Chitadae

2013. 6.30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30 June 2013(Sun) 2:00pm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옛날 임금이 궐 밖 행차를 할 때나, 군대의 행진 때 연주하던 군악(軍樂)의 하나로 취(吹) 악기와 타(打)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대취타 공연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40인조의 웅장한 대취타의 행진과 함께 시작하며 소금합주 , 태평소 합주, 모듬북 합주, 설장구 합주 등 각 파트별로 대표곡들이 연주되며, 이어서 특별출연하는 여성평화예술단 '연'의 장구 연희 춤사위로 부드러움을 보여준다. 마지막 공연은 사물놀이가 중심이 되고 대취타가 어우러지며 전체 출연자가 하나가 되는 60인조 '화광(和光)' 연희가 펼쳐진다.
화광은 '평화의 빛을 비추리라'는 염원을 나타낸 의미로 2012년 세계사물놀이겨루기대회에서 버금상을 받은 합주곡이다.

'Daechita' is a military orchestra played by only wind instruments and percussions, which was played during the King's ceremonial walk and military marches.
The performance opens with 'Daechita' parade of 40 players. Followings are 'Sogeum(small gong) ensemble', 'Modeumbuk(drums) ensemble', 'Seoljanggu(hourglass shaped-drum) ensemble'. Then, the featured artist, Woman Peace Arts Company 'Yeon' presents 'Janggu dance'. Lastly, 'Hwagwang(fire and light)' orchestra, which shows harmony of Samulnori(four percussions) and Daechita(wind instruments and percussions), will be performed by 60 players.
Hwagwang, which means wish to 'shine a peaceful light', was awarded Beogeum(2nd) prize at the 2012 International Samulnori Contest.

공연순서 PROGRAM

1. **대취타 합주** Daechita ensemble
2. **소금 합주** Sogeum(small gong) ensemble
3. **모듬북 합주** Modeumbuk(drums) ensemble
4. **설장구 합주** Seoljanggu(hourglass shaped-drum) ensemble
5. **태평소 합주** Taepyeongso(conical oboe) ensemble
6. **장구 연희춤** Janggu(hourglass shaped-drum) dance
7. **총체 대합주 화광연희(和光演戱)** Orchestra 'Hwagwang'

대 표 이명철(태극 취타대 단장)
사 회 김보미
출 연 이춘희, 이인상, 장영환, 장동국, 함창희, 전영환, 박호진, 장치후, 임종일, 김재현, 류완기, 김한용, 박종일, 한 준, 이석재 외 50명
특별출연 평화 예술단 '연'